제시문 (가)는 농업 기반의 동양 공동체주의 사회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사회에서는 개인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깁니다. 반면, 제시문 (나)는 산업화 이후의 서구 개인주의 사회를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사회적 규범보다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과 성취, 그리고 그에 따른 주관적인 만족감을 행복의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처럼 행복의 기준은 한 사회의 구조적, 문화적 특징과 깊은 관련을 맺으며 상대적으로 규정됩니다.  
  
저는 이 두 관점을 절충하여 ‘개인의 성장을 통해 공동체에 기여하는 삶’을 저의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으로 삼고 싶습니다. (나)에서 강조하는 자아실현은 개인의 삶에 필수적인 동력이지만,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완전한 고립 속에서는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가진 재능과 열정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그 과정에서 얻은 능력과 성과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진정한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개인의 만족을 넘어 더 큰 의미를 찾는 과정이기에 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